

연극적 놀이를 통해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탐색하기

극단거울의 <보이책-마리를 죽인 남자>

이용복, 숙명여대 강사

<보이책 - 마리를 죽인 남자>가 대학로 마당세실 극장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2일 까지 극단거울의 제2회 정기공연으로 올려졌다. <보이책 - 마리를 죽인 남자>는 게오르그 뷔히너의 작품으로 번역에 임호일, 각색·연출에 백은아씨가 수고하였으며 정인겸 임채용 강선희 등이 출연하여 무대를 꾸몄다. 그렇다면 이번 공연을 통해 본 극중극의 구조 및 다역의 연기, 공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보이책-마리를 죽인 남자> 공연장면

극단 거울의 제2회 정기공연으로 올려지고 있는 <보이책 - 마리를 죽인 남자>는 뷔히너의 작품을 극중극으로 각색한 것이다. 각색은 연출자가 직접 맡았다. 이 공연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보이책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한 법정 정신과 의사를 창조하여 그가 보이책으로 하여금 과거를 재현하게 하는 연극적 놀이 즉 극중극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의 출발점은 보이책이 마리를 살해 한 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시점이다. 이 정신과 의사는 무엇이 보이책으로 하여금 사랑하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몰고 갔는지 알고 싶어한다. 즉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것인지 혹은 환청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 착란 상태에서 한 것인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공연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극중극의 구조 및 1인 다역의 연기, 둘째 공연의 특징, 셋째 공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이다.

극중극의 구조 및 1인 다역의 연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극 <보이책 - 마리를 죽인 남자>는 보이책이 마리를 살해한 뒤의 이야기로서 교도소에 있는 보이책을 법정 정신과 의사가 방문함으로써 시작된다. 의사는 이 극의 내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는 보이책을 면담한 일들을 관객에게 설명해 주거나 혹은 간호사 및 보이책과 함께 직접 극중극을 연기하기도 한다. 극중극을 위해 의사는 보이책의 정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열쇠인 아내 마리 역할을 할 인물로 간호사를 데려간다. 이 공연은 원작에 근거하고 있지만 원작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여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보이책>이다.

첫 장면은 보이책이 감방의 한쪽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의사의 묻는 말에 그는 대담 대신 토끼가 풀을 뜯고 있다는 등 엉뚱한 말만 늘어놓

는다. — 사실 이 대사는 원작에서 보이책의 친구 안드레이스가 들뜬에서 부르던 노래이다. 그리고 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정신질환자의 모습이다. 연출은 이 인물을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의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면회하는 의사이자 이 극의 내레이터이기도 한 인물의 서술에 의하면 보이책은 교도소에서 짐승처럼 시끄럽게 울부짖기도 하고 긴 수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멍백한 정신착란에 빠져있는 인물로 제시하는 것은 환청이나 환각과 같이 암시적인 상태로만 묘사하고 있는 원작과는 달리 인물의 상태를 보다 명시적이고 또 훨씬 악화된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보이책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극은 과거 시점으로 이동한다. 의사가 직접 보이책에게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상황들을 재현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극은 단번에 극중극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정신과 의사는 보이책의 상대역이 되어 보이책이 면도를 해주던 대위가 되기도 하고, 보이책을 생체 실험하던 박사가 되거나 혹은 마리의 애인인 악대장이 되기도 한다. 원작에 나오는 인물들 중 대위와 박사, 그리고 악대장과 마리만 등장하고 다른 인물들은 생략되었다. 하지만 극중극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구현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원작에 있는 인물들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극에 사용된 극중극 형식은 마치 사이코드라마처럼 보이책으로 하여금 자신의 옛 일을 되새기며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게 하는 수법인데 보이책은 과거를 재현하는 연극 놀이를 하면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는 의사와 함께 그를 생체 실험하던 박사와의 일을 재현하면서 박사가 그에게 하였듯이 의사의 귀를 복수하듯이 잡아당기기도 하고, 악대장과 마리가 서로 껴안고 똥구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마리를 죽이고자 하

는 욕망에 휩싸여 두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한다. 이때 마다 극중극은 중단되고 보이책의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은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보이책이 극도의 신경불안 정성을 보이는 정신착란 환자라는 진단을 내리게 한다.

극중극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색자는 피란 델로의 <작가를 찾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에서처럼 보이책이 자기가 나서서는 안 될 장면에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인물들의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희극적인 요소도 가미하였다. 또 상대방의 연기를 교정해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극중극이 중단되자 보이책과 의사는 담배를 피우며 쉬기도 한다. 이 때는 다시 극중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 상황이 무엇인지 간호사에게 물어본다. 이외에도 간호사가 자신도 마리가 받은 보석과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던가 그녀가 마리 역을 하다가 머리를 옆으로 틀어 올리며 이웃집 여인 역을 하고, 또 배우(임채용)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그들이 극중극을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극에는 정신과 의사는 인물의 창조, 그가 보이책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와 보이책과의 면담과 과거로의 플래쉬 백(flash back)과 같은 수법 외에도 각색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대사들이 많다. 예를 들면 보이책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지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할 때처럼 보이책에게 뭔가를 상상해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이책이 자신은 마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이책이 꿈 어머니의 꿈 이야기 등이다. 또한 대사도 약간씩 수정하였으며, 배우가 세 명뿐이라는 한계로 인해 원작에는 나오나 이 극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의 대사가 이 극의 등장인물의 대사로 치환되기도 하였다. 이 극은 결국 백은아의 <보이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재판이 끝나면 그를 치료해서 평화를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가 결론 지은 대로 정신착란으로 인한 살인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책은 독방에서 자살을 하고 말아 의사는 당황하게 된다. 의사는 보이책의 상처를 건드림으로 인해 그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보이책의 자살은 오히려 그에게 행복한 죽음은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한다. 그는 아직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각색자의 범상치 않은 감각보여

무대는 보이책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보여준다. 빈 무대 위에는 파란색 철문만이 있고 이것은 양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이 중립적인 무대는 철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 따라 다양한 극중극의 공간을 구현한다. 즉 교도소에서 마리의 방이 되기도 하고, 보이책이 대위의 면도를 해주는 방 혹은 박사의 연구실이 되기도 하며, 악대장이 지나가는 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간은 모든 장소가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단지 극중 현실의 공간인 교도소를 의미할 때는 보이책이 철문 뒤에 있음으로써 그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극중극의 장면에서 철문은 대부분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 철문은 무대 안쪽 및 객석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공간 창출이 가능하다. 무대는 극중 현실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극중극의 공간이 되고 있지만 극중극을 할 때 연출은 그것이 연극적 놀이임을 알리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것은 바로 두 명의 인물이 극중극을 연기할 때 다른 인물은 무대의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대 위에 또 다른 관객이 있는 전형적인 극중극의 수법이다.

원작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번 각색된 공연에서는 단지 세 명의 배우만이 출연한다. 그래서 보

이책(정인검 분) 외의 인물들은 1인 다역의 연기를 하고 있다. 법정 정신과 의사(임채용 분)는 대위, 생체 실험하는 박사 그리고 악대장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하고, 간호사(강선희 분)는 마리의 역할을 한다. 의사 역의 임채용은 여러 인물을 소화해 내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기 울음소리까지 즉석에서 연기하는 등 음향효과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 변화는 의상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것은 주로 상징적인 의상이나 소품으로 인물의 직업을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신과 의사는 검은색 톤의 양복을 입고 있으나 그가 극중극에서 대위 역할을 할 때는 테니스 라켓을 든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고, 박사 역할을 할 때는 흰 가운을 걸치고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악대장의 역할을 할 때는 노란 술이 달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다. 간호사는 가운을 입고 있다가 마리 역할을 할 때는 흰 드레스 차림으로 바뀐다. 보이책은 줄곧 혈렁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있다.

이들의 연기는 옷이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열심이였다. 보이책 역을 맡은 정인검의 광기가 엿보이는 눈빛과 몸짓이 인상적이었고, 정신과 의사이자 극중극의 여러 인물을 소화한 임채용은 각 인물을 개성 있게 보여주었다. 정신과 의사일 때는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을, 대위일 때는 거만하면서도 도덕이라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히스테릭한 모습을, 의사일 때는 인간의 의지로 자율신경을 지배하고자 하는 역시 광적이고 희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악대장일 때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과시하는 인물로 다양한 변신을 하였다. 간호원이자 마리라는 매우 대조적인 역할을 맡은 강선희는 두 인물로의 변신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고 있다. 한편 오브제의 사용 역시 이 공연의 큰 특징인 극중극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개를 아기 대신 사용하는 것거나 보이책이 마리를 찌르는 칼을 종이로 대신하는 것은 명백히 연극적 놀이를 암시하는 기호이다.

극중극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색자는 피란델로의 <작가를 찾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에서처럼 보이책이 자기가 나서서는 안 될 장면에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인물들의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극중극이라는 연극적 놀이형식

이 극은 보이책의 정신상태 즉 그의 환청과 환각 상태를 부각시킴으로써 그가 마리를 살해하게 된 것이 정신적·신체적 피폐함 속에서였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극은 한 마디로 원작의 내용에 근거하면서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파헤쳐 보고자 하는 연출이자 각색자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색자에 의해 새롭게 다듬어진 대본은 그 언어가 유려한 한국어로 새롭게 씌어진 부분도 많았고 그 중에는 시적이고 희극적인 대사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각색자의 범상치 않은 언어 감각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원작에는 등장하나 이 극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의 대사를 이극의 등장인물의 대사로 치환시켜 놓은 것은 인물의 성격을 각색자의 의도에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보이책을 정신 질환자로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극의 진행 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해답은 이미 주어진 상태인 채 극은 주인공이 대위나 박사 등으로부터 받는 학대와 조롱,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점점 기력을 잃어 가는 상태에서 자신을 배신한 아내의 살인에 이르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작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공연은 주인공에게 영향을 끼친 주변 인물들과 주인공이 처했던 상황을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의 심리적 공황 상태와 그로 인한 자기 파멸의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극의 결말을 사실과 달리(주인공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은 정신 분열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부적응자의 단순한 치정살인이라는 판정을 받아 처형되었다) 보이책이 재판을 받은 뒤 독방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만든 것도 인물의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각색자

는 순수했던 한 인간이 살인이라는,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신적·물리적 환경의 영향이며 부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극단 거울의 이번 공연은 주인공의 범죄가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그릇된 욕망의 희생물임을 부각시킴으로써 한 생명을 구하고자하는 따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보이책이,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연 극중극과 같은 연극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교도소에 수감된 보이책과 그를 면담하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그들의 극중극 놀이는 모두 각색자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정신질환에 걸린 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시 재현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 전혀 다른 인물인 간호사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한다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공연은 연출이자 각색자의 상상력과 확신의 산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이 이 공연이 가지는 장점이자 모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띄고 있는 연극적 놀이의 형태는 희극적이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물론 이 극은 매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출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웃음을 선사해 준다. 그것이 바로 극중극이라는 연극적 놀이 형식이다. 극중극 도중에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불쑥 무대 중앙으로 뛰쳐나와 다른 배우들의 제재를 받는다가 과거를 재현하다가 주인공의 광기가 폭발할 때는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극의 흐름을 끊으면서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숨돌릴 여유를 주고 그들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 따라서 극은 덜 비극적이 되고 관객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